

사순 제 1주일

제 1독서 : 신명 26,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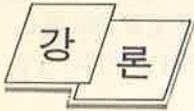
제 2독서 : 토마 10,8-13

복 음 : 루가 4,1-13

# 순정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토마 10.9)



## 예수의 유혹



김광태 신부 / 중앙 천주교회

공판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은 광야의 유혹으로 시작해서 올리브산의 유혹으로 끝난다. 실제로 예수님 역시 술한 유혹과 싸우셔야 했다는 것을 성서저자들이 간과하지 않은 것 같다.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모두 메시아로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눈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굶주림과 관계되었던 사람들도고, 따라서 사랑의 눈길에 비친 군중들 자체가 그야말로 유혹 덩어리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루가 9,10-17)을 단 한 번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굶주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시고 싶은 것이 당신의 마음이었을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애써 그 유혹을 뿌리친다. 인간의 문제는 부족한 빵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에서 뛰어 내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느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신앙을



빌미로 세상 일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외면한 채 철저하게 하느님께만 의존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빵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 해결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인간이 만들고 해결은 하느님께 떠 넘기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을 조롱하고 떠 보는 일이다.

그렇다고 예수께서는 현실의 악과 타협해가면서 권력을 통해 순전히 물리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메시아로 여기고 물려드는 군중들 동원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는 일 역시 악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거기에는 또 다른 악이 파생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그 권력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구조적인 악을 근절시킨다고 하더라도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시며 인용하신 말씀은 모두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명기는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회상하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에만 순명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 성서이다. 올리브산에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루가 22,42)라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만을 절대시하신 것이다.

진정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순명이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느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간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하느님 말씀에 의탁하신 이후의 일이다(루가 4,14). 우리에게 그 나라가 드러날 날은 언제일까?

여 명

# 사순 · 삼일절 · 통일

박대길(벨라도)

### ■ 3·1절과 재의 수요일

지난 3월1일은 '재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날부터 사순시기 동안 신자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다시 생각하고 참회행위를 통해서 빠스카의 신비체험을 준비한다. 또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엄격히 단식하던 것을 본받아 자신의 회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노력한다.

그런데 이 날은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이 땅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독립만세'를 외친 역사적인 날이었다. 일제의 총칼에 의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백성이 목이 터져라 '독립'을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와 함께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 날은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염원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회생을 불사하고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이다.

3·1절과 재의 수요일이 함께 한 올해의 3월1일을 보내면서 이 땅 역사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었으면 한다. 또한 올해는 해방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민족과 국토가 두 동강난 지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하나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 ■ 분단 50년의 세월

1945년 8월15일,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군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맞이한 민족의 새로운 출발은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와 민족의 분열이 한데 뒤엉켜 혼란을 겪더니 급기야 동강난 민족, 동강난 국토를 초래했다. 한마음 새 마음의 각오로 새로운 국가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도 힘겨운 민족의 운명이 돌로 절단난 것이다.

남과 북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급기야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었고, 이후 남과 북의 정권 담당자들과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집단은 국토와 민족이 두 동강난 이 비극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했다. 반면에 국민들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실항민의 설움을 수십년 동안 감당해야 했고, 분단의 멍에를 짊어져야만 했다. 그런데, 50년에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이 모두는 엄연히 인간이 만든 죄악이요 불행이다. 분단 50년의 세월을 피눈물로 지새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이 민족의 비극은 언제나 끝을 맺을 것인가?

### ■ 교회가 앞장서 민족의 통일을 이루자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라고도 한다. 이 말은 한국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봉헌을 통해 자리잡았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신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며, 알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교회가 민족의 복음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혹은 어떠한 역기능을 했는지 알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몇몇 뜻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대다수의 신자들은 현실을 사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분단 5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에 대해 다수의 신자들은 무감각해 하거나, 애써 외면해 왔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교회는 그런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자신들의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거나 보다 나은 경제환경을 갖추는 것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3·1운동 76주년과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 묘하게도 일치하는 올해는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50년이라는 세월은 또한 분단 50년이 됨을 뜻한다. 언제까지 서로 갈라져 원수처럼 지낼 것인가. 사순시기 동안 분단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위해,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정화를 위한 노력을 솔선하여 해 나가자.

### 숲정이 산책



잘 준비하자.

##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박정규(세레나) / 서학동 천주교회

평범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분을 찾아보게 되어 소개한다.

박정규(62세·세레나)씨는 김선태 신부님의 어머니으로 지금은 7남매를 두고 모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원래 친정은 뿌리깊은 외교집안, 즉 개신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다. 천주교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국민학교 시절 친구따라 가본 성당이 너무나 좋아서 엄하신 아버님 몰래 교리공부하고 미사 보며 나름대로의 신앙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약 40년 전 영세를 받고 구교집안의 아들인 지금의 남편 김중화(마르코)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시택은 대대로 내려오는 구교집안이었어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소망만 있었지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러다 시집와서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분위기, 시부모님, 시대 식구들의 신앙생활에 함께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저의 신앙을 꾸준히 키워나가게 됐어요.”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에 아침엔 일어나고 출근하는 시간이 달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저녁시간에 기도해요. 저녁 9시를 좀 넘어서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통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깐의 담소 후 자리를 파합니다. 원래 구교집안에서 자라서인지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이런 것 또한 주님의 은총이겠지요.”

박순례 씨는 또 매일같이 새벽녘에 일어나 1시간 20여분 동안 묵주기도와 9일기도를 바친다고 한다.

현재 서학동 성당에서 레지오 단장으로 활동하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치명자산에 올라 가족들을 위해,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녀는 하느님의 체험에 대한 질문과 산에 오를 때 지향을 묻자,

“만 사람들은 하느님이 눈으로 보이는 것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삶 자체가 하느님 모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7남매 건강하고 크고, 또 모두 신앙생활 열심히구요. 물론 살다보면 기쁜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런 어려움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고, 제 십자가다 생각합니다. 치명자산에 처음 오를 때 지향은 지금은 신부가 된, 그 시절의 신학생 아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이루어졌지요. 하느님 사랑의 크심에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유중철(요한)·이순이(루갈다)가 성인품에 오르게 해주시라고, 모든 믿는 이들과 7남매 아이들이 순교성인들을 본받아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죠.”라고 답하시면서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사순시기라 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늘 하는 일상생활일 뿐이고, 그게 전 좋아요. 작년 사순시기는 텔레비전 안 보는 대신 성경을 보기로 하고 4복음(마르코, 마태오, 루가, 요한)을 읽었어요. 읽고 나면 금방 잊어 버리곤 하지만... 이번 사순시기엔 자신에게 나쁜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고치자고 단원들에게 말했는데 솔선수범해야 하겠지요. 84년도부터 오른 치명자산을 이번 여름엔 세 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올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산에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하느님께서 내 곁에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시간도 많구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며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주모경 한 번 바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면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강한지 알 수 있었다.

평범한 듯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분의 생활을 보며,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자신 안에서의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그분의 소망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취재 : 김지연(마리아)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②

# 5구역 2반 형제회

용머리 천주교회

용머리 성당, 신자 총수 400여 세대에 800여명, 전국에서도 본당구역이 제일 작을지도 모르는, 아파트와 산기슭의 영세민들이 어우러져 사는 조그마한 본당, 이 본당에는 6개 구역과 31개의 반이 조직되어 있다. 그 중에 성인 남자들의 반이 4개가 있고, 몇 개의 남자들 모임이 더 생길 전망이다. 그 중에서 비교적 모임이 잘 된다는 '5구역 2반 형제회'을 찾아왔다.

반 회원의 구성은 73세의 유성근(프란치스코) 형제부터 37세의 정원일(안드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반 회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하시는 일도 각자가 달라서 마치 무슨 중천회 모임을 갖는 착각을 할 정도로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반 모임은 저녁 8시부터 10시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2시간은 전 주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느낀 점을 나누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 내용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얘기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기쁜 일은 마치 자기 일인 양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30분 정도는 본당의 여러 가지 공지사항과 관심사에 대해 논하고, 마침기도와 함께 간단한 다과와 음료수를 나누며 끝을 맺었다.

그 날은(2월23일) 10명이 참석했었는데, 얘기를 들으니 매주 목요일 항상 10명 정도 참석한다.

그러면 반 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해 본다.

우선 김정철 회장님께서 회원들의 간단한 소개를 했고, 시작성가와 반 모임을 인도하는 간단한 자유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복음 묵상 나눔 7단계 자체 평가 방법'을 설명하면서 회원들의 대답을 유도해 나갔다.

그리고 회장님과 이형수 형제님이 전 주일 복음(연중 제 7 주일)인 루가 6, 27-38절을 천천히 3번 씩이나 봉독



했고, 회원들은 각자 맘에 드는 귀절에 열심히 밑줄을 그었다. 성서봉독이 끝난 후 5분 정도 깊이 묵상하고 나서 회장은 회원들에게 각자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귀절을 발표하도록 유도했고, 회원들은 발표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귀절을 다시 한 번 읽고 난 후 왜 그 귀절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귀절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발표해 나갔다.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라"(루가 6, 27-38)는 내용이었는데 몇몇 회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예로 들어 본다.

정성중 형제가 택한 말씀은 루가 6, 32절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라도 사랑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정석봉 형제가 택한 성서 귀절은 루가 6, 29절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주고..."였는데 선생님은 이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하고, 사랑과 친절을 다했다. 정말 바보처럼 보이고, 힘들었지만 계속적으로 실천한 결과 인정을 받게 되

### 수도 협회원 학원

김기형(요한)  
이춘일(안나)

전동 사내 · 의 버스정류장 옆  
☎ 231-7571

###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 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75-5411  
호출기 012-682-0046

### 제5차 영성강연회

주제: 사랑과 헌신-영성대화기술  
강사: 빌리 램베르트(독일 예수회원)  
일시: 3.25-27일 오전 9시~오후 6시  
정소: 일반신도,수도자,성직자(40,000원)  
수도회자·청원자,수련자(25,000원)  
문의: ☎ (02)705-8230, 866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역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 요심이 (1123) 김병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 내용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얘기하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기쁜 일은 마치 자기 일인 양 축하해 주었다.**

고, 지금은 그들에게 종교인의 신앙심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좋다.

김낙철 형제가 택한 귀질은 루가 6,37절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분은 정년퇴임을 하신 분으로, 건강을 위해 친구들과 게이트 볼(Gate ball)을 치시는 분인데, 친구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은 좋은 점을 발견 복돋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할 때 거기에는 분열과 파멸밖에 없더라는 것이다.

이규세 형제가 택한 귀질은 루가 6,32절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나는 보상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성서를 대할 때마다 다짐하지만, 실제 생활하다 보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또 노력해보겠다. 기도 좀 부탁한다"며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다.

어느 분은 루가 6,28절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였는데 그분은 '걸핏하면 뭐라고 하는 집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서스럼없이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다 옮길 수 없어 아쉽다.

처음 반모임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떨릴 수가 없고 어색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복음 나누기 7단계' 방법으로 말씀과 생활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만 했다.

어느 본당이든 반 모임은 대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남자들은 가뭇에 콩나듯 하는데, 용머리 본당은 그 바쁜 중에도 남자분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힘을 얻는 것이다.

지난 '92년 7월에 시작되었다는 '5구역 2만 형제회' '93년에는 31회, '94년에는 40회 모임을 가졌단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옆집의 젓가락이 몇개인지 알 정도이고, 제2의 고백소처럼 무엇이든 나눌 수 있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본당 신부님을 중심으로 수녀님, 사목회, 제단체 등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성당 기공식 날을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것이 곧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일)故 김성진 신부님의 모친 조남순(루시아)의 회갑을 맞이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올림

### 사회복지회 남자 직원모집

- 1. 지원자격: · 영세한지 5년 이상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 군복무 필한자
-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세계 증명서 및 본당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통
- 3. 제출서류마감: 3월18일(토) 오전 12시
- 4. 제출처: 천주교 천주교구청 사회복지회(☎84-5290)

### 사무장 구함

- 1. 제출서류: 이력서, 세계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 2. 연락처: (0654)446-9197
- 3. 제출기간: 3월 31일까지 천주교 팔마교회

### 사무원 구함

- 1. 자격: · 영세한 지 3년 이상 · 고졸 이상 · 컴퓨터 운영능력
- 2. 제출서류: 이력서, 세계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 3. 접수마감: 3월12일(일)까지
- 4. 접수 및 문의: 삼천동 천주교회(☎225-0396)

### 늘 푸른 집

우리 기온, 우리 환경에 맞는 무공해 세계 세계질 우리 강물 지켜주는 한국소 물비누 천연샴, 샴이랑, 샴은샴 ☎86-2050 호출 012-682-6543

###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요한) 양 진 회(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 75-0550

뿌리를 찾아서 48

# 신동 성당

—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 —



현재 본당 공동체는 사목회를 중심으로 34개 관할구역으로 편성하고 19개의 제단체 및 레지오 마리아에 1개 꼬미시움, 2개 꾸리아, 33개의 뿌레시디움이 본당의 사목과 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성 이명서 베드로를 후보로 모시고 있는 이 본당은,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신동 본당은 전주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86년 1월31일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순교자들의 믿음을 온 누리에 밝히고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창인동 성당과 영등동 성당에서 분리하여 이리시 남중동에 있는 지상건물 지하실을 개조 2월9일 박정일 주교님과 함께 첫미사를 봉헌하였다.

모든 신자들이 초대 박종상(가브리엘) 신부와 한마음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떠나갔다.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낀 신자들은 마침내 87년 2월 신동 성당 대지(804-5)를 매입하고 그해 4월 성당신축 기공식에 이어 11월 현성당(지상 2층,

지하 1층)을 건립하여 성전축성식을 거행하였다.

'88년 3월 광주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파견된 수녀님들을 모시게 되었다. 신자들 영성생활과 예비자 교리 및 냉담자 회두에 전력하며 본당 발전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거처를 옮겨 다니며 고생하시던 신부님의 사제관을 그해 7월 마련하였다.

제2대 김병운(베네딕도) 신부는 본당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제3대 김기수(사도요한) 신부는 말씀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본당사목의 주요목표로 삼고 신심, 교육, 구역반 모임 육성 및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명상의 자리

# 날이 밝기를

그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까?  
어서 새벽이 와  
이 고된 여행과 노동을 끝내고  
아늑한 잠자리로 돌아가  
쉬고 싶으십니까?  
그대여, 새벽을 맞기 전에  
누가 그대를 기다리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대의 힘든 수고를 끝내기 전에  
무엇을 바라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대의 안식과 수고가 있는 곳에  
그대의 보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럭키 물탱크 공사

럭키SMC물탱크 판매 시공 전문

이진호(안드레아)  
임윤순(로사리아)

☎ 252-8000, 76-0091  
FAX. 252-6274

### 40년 전통 성심당 한약방

이상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남태(바오로)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 (0653)842-2604~5  
54-9504

### 사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재갑(다두)  
정원미(클라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사상건강회

# 교구소식

## ❖ 축! 건진

- 때 : 3월12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삼례 성당
- 주례 : 이병호 주교

## ❖ 축! 독서지, 시종지

- 때 : 3월6일(월)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

### 독서지

권순호(나바위 본당) 김병희(송천동 본당)  
정식수(고 창 본당) 김형두(숲정이 본당)  
유진영(효자동 본당) 공현성(전 동 본당)

### 시종지

송호석(조촌동 본당) 신원철(서학동 본당)  
김시문(금 압 본당) 서철승(진 안 본당)  
강 호(팔 마 본당) 박종남(송천동 본당)  
김동준(전 동 본당) 이원철(중 앙 본당)  
김원중(신 동 본당)

## ❖ 호성동 성당 기공식

- 때 : 3월5일(일) 오전10시30분
-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

## ❖ 가톨릭 언론인, 방송인 공소방문

- 때 : 3월12일(일)
- 장소 : 가톨릭센터 오전9시30분 출발

## ❖ 천호 피정 안내

- 때 : 3월7일(화)
- 주제 : 죽음과 기다림
- 감사 : 조원규 신부

- 때 : 3월11일~12일
- 주제 : 그리스도 고통의 의미
- 감사 : 김준수 신부
- 문의 : 73-6600

## ❖ 공소 회장단 연수

- 때 : 3월9일~10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 새 사제 연수과정

- 때 : 3월9일(목) · 장소 : 교구청

## ❖ 예·신 월례모임

- 때 : 3월12일(일) 오후1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 사회복지 월례미사

- 때 : 3월6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레크리에이션 강습회

- 때 : 3월11일~12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 성직자 묘지 미사

- 때 : 3월11일(토) 오전10시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직자묘지

## ❖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에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헌혈

- 때 : 3월12일(일)
- 장소 : 삼례 성당

## ❖ 전국사진공모전

### 제1회 "보시니 좋더라"

1. 작품내용 : 미발표 자유작
  2. 응모자격 : 전국사진 동호인
  3. 규격 : 흑백, 컬러 11"×14" (이면에 제목,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기)
  4. 출품료 : 1점당 7,000원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5. 접수마감 : 95. 6. 15
  6. 심사발표 : 95. 6. 25 (개별통지)
  7. 접수 및 문의 : 부산교구 홍보국 사진공모전 담당자 (☎ 051-465-6235)
- 주최 :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재활용을 생활화하자

우리가 버리는 모든 것들 중의 40~50%가 종이라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 버릴 때 배어지는 나무 한 그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17그루가 베어져야 한다니...

종이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 버렸으니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무턱대고 안 쓸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는 늘 최소화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각종 광고전단이나 통지문의 뒷면은 전화내용이나 반찬거리를

메모하는데 쓰고, 내가 받은 선물상자를 모았다가 다른 곳에 선물할 때 쓰고, 복사기 옆에는 상자를 놓고 잘못된 복사 종이를 모아 뒷면을 메모지로 쓰자. 종이 뿐만이 아니라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도 아이들 장난감이나 화단에서 꼭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버리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사용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음식 찌꺼기에 젖은 종이를 다시 쓰기는 어려우니까.

## 믿음의 나눔자리 안내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는 통신교리 수강자 및 갓 영세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믿음의 나눔자리를 펴내고 있다. · 내용 : 교리, 전례상식, 성서해설, 신앙체험기, 명상, 문화관 등으로 구성 · 1년 10회 발행, 1년 회비 8000원(전화 신청 가능) · 문의 : (02)275-0691/266-2558 FAX(02)277-4492 (월-금/9:00-17:00)

## 천하 오토바이

전지종 · 판매 · 수리 · 교환  
남 상 권(프란치스코)  
신문회(사비나)  
KBS방송교 고가도로 복개전 사거리  
☎(0652)72-3847

##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 전 상 진(베드로)
- 유 명 숙(요안나)
-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 성윤예식장

- 한 홀에 하루 2쌍만을 탄생시키는 여유로운 예식 · 예식과 피로연이 동일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곳
- 편리한 대형 주차시설
- 임 점 옥(사비나)
- 어은터널 앞
- ☎ 224-8048

## LG(금성)에어콘 총판

- 에어콘, 향온항습기, 공기정화기,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 냉난방
- 원 종 삼(발라바)
- 원 승 연(도밍고)
- 삼화공조 ☎(0652)251-0190-2
- FAX.(0652)251-0192

## 월드 카메라

- 각종 카메라 판매 · 수리
- 필름 현상 · 인화
- 유 석 영(미카엘)
- 전통백화점 5층
- ☎ 232-0114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승동** 사 제 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 사순 제1주일 : 통회와 보속으로 사순절을 뜻있게 보냅니다!
- ◎ 사순절 돼지저금통 및 성미운동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 1. 사순절 사랑의 성금 접수 : 사무실
- 2.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사목회 주도)
- 3. 가정방문 안내 : 9일-중노5반, 10일-중노6반
- 4. 전입을 환영합니다.  
· 조천일(크리스티나) - 인보의집 ☎84-0295
- 5. 모임 : ①울프레이(오늘 장엄미사 후)  
②부녀회(8일 어머니미사 후)  
③세실리아회(10일 저녁미사 후)  
④장우회(12일 장엄미사 후)
- 6. 비품 구입현금 신입하신 분 : 본당신부님 - 30만원, 김동주(유스티노) - 30만원, 박일철(요한) - 60만원, 최만식(시몬) - 13만원. ※계 - 133만원. \* 미신입하신 분 신입바랍니다.
- 7. 돼지저금통 및 성미주머니 안 가져가신 반회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 8. 축! 혼인 : 12일 전 11시30분 신랑-김정식(벨라도) 군  
신부-이금숙 양
- 9. 금주 청소 : 인후 9, 10반  
차주 청소 : 인후 11, 동진1반
- 지난주 봉헌금 : 923,820원 □ 교무금 : 1,920,000원

**\* 서학동** 사 제 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현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 1. 모임 안내 : 꾸리아-오후 2시 강당  
청년회-저녁미사 후 회합실  
사목회-7일(화요일) 저녁 8시 회합실  
자모회-8일(수요일) 오전 10시30분  
울프레이-9일(목요일) 저녁 7시30분  
프란치스코삼회-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 강당
- 2. 사순절 :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강소-치명자산
- 3. 초·중·고 교리 등록세 실시 : 95학년도 1학기 등록비 3,000원  
(교재 및 교리준비비)
- 4. 반미사 안내 : 7일(화요일) 오후 2시30분 1, 2, 3반  
8일(수요일) 오후 2시30분 4, 5, 6반  
10일(금요일) 오후 2시30분 7, 8반
- 5. 교리교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연수 : 3월11일~12일  
강소-나바위
- 6. 전입을 환영합니다 : 고재영(스테파노) 전동·고용석(요한) 중앙, 박규석(프란치스코) 해성·심판숙(엘리사벳) 금암, 유영수(요한) 주현동·홍연순(리디아) 전동, 이승현(베드로) 화산동  
\* 의자성금 : 염옥남 250,000원, 유용산 300,000원, 송대영 250,000원, 김차득의 13명 740,000원, 저녁주 의자성금 1,540,000원, 누계 2,30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885,700원 □ 교무금 : 1,031,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송 년 홀  
사목회장 황 길 평

- 1. 3월은 성요셉 성월
- 2. 공식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3. 사순절 신앙강좌 : 사순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강사-법석규 마타이 신부
- 4. 금주 회합 : ·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 대전회, 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 울프레이-7일(화) 저녁미사 후  
· 구역분과회-7일(화) 오전 10시  
· 안나회, 자모회-9일(목) 오전 10시  
· 여성분과회-11일(토) 오전 10시  
· 요셉회-12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꾸리아-12일(다음주일) 오후 2시  
· 청년회-12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성당 청소 : 3월11일(토) 황금궁전Pr., 성모성녀Pr.  
금주 전례 : 해설-정승훈, 독서-신택섭 부부,  
봉헌-강주호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조옥래, 독서-송종열 부부,  
봉헌-정승환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29,950원 □ 교무금 : 1,252,5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영 태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명 현

- ◎ 사순 제1주일  
치명자산 산상미사-오전 5시30분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 6시30분(성당)
- 1. 금주 : ①성소후원 회비 납부주일  
②울프레이 총회(공식미사 후, 총연관)  
③재속극라라형제회(후 1시30분)
- 2. 빼에파회 : 8일(수) 오전 11시
- 3. 예루살렘회 : 8일 오전 11시
- 4. 돈보스코회 : 8일 오후 7시30분
- 5. 성심유치원 입학식 : 9일(목) 오전 10시30분
- 6. 유아 세례 : 11일(토) 오후 3시-대상자는 10일까지 접수
- 7. 다비드회 : 11일 오후 3시
- 8. 차주 : ①자모회(오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 9. 견진성사(4월23일) 대상자(중학생 이상)접수 : 3월18일까지  
교리-3월19일부터 4주간 공식미사 후에 교리  
4월17일-22일 성령세미나
- 지난주 봉헌금 : 1,907,250원

**\* 상 관** 사 제 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봉 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3월은 성요셉 성월
- ◎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 ◎ 매 미사 30분 전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1. 모임 : ①꾸리아,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안나회-다음주일
- 2.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3. 구역형제회 : 8일(수)-서당,공기,내정,백암,어두,수월,의암  
9일(목)-신흥,하신,상신,원신,색장,마치
- 4. 환영! 김 애덕글라라 수녀님
- 5. 축! 혼인 : 신랑-강석원(스테파노) 신부-박경아(테레사)  
12일(일) 12시30분, 덕진성당
- 6. 금주 청소 : 천사들의 모후Pr. 차주 청소 : 평화의 모후Pr.
- 7. 금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김봉길 ②송정자  
봉헌-이준희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최원규, 독서①최경림 ②이석남  
봉헌-성대직씨 부부  
· 단식및 금육 : 교회의 정한대로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단식제와 금육제를 지키고 사순절 매 금요일은 금육제를 지킨다. 단식제는 하루 한끼는 충분히 식사하고 아침을 극히 적게 먹고 나머지 한끼는 보통량의 반을 먹으면 된다(만 21세부터 만 60세) 금육제는 정승, 새 등의 고기(肉類)를 먹지 못한다(만 14세부터 죽을때까지)
- 지난주 봉헌금 : 387,250원 □ 교무금 : 144,000원  
□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 140,170원

**\* 평화동** 사 제 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김 삼 근

- ◎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다"(사순절 1일 생활계획)
- 1. 공동 십자가의 길 : 사순절 동안 매 금요일 저녁미사 후
- 2. 구역 반회장 연수 : 7일 전 10 : 30 쉬는 교우 찾아보기
- 3. 공소회장단 연수 : 9일~10일 천호, 회비-25,000(9일 후 1 : 30, 센터 출발) 조대식, 최완봉, 오규, 이순자, 김순이, 한상철
- 4. 반미사 : 7일 후 3시 1-2 후 8시 5-3, 4. 9일 전 10시, 11일 전 10시 1-5 미신청만은 사무실에 접수하십시오.
- 5. 교도소 재의예절 : 8일 후 2시 연제나 은인을 구합니다.
- 6. 교리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습회 : 11일~12일 나바위
- 7. 회의 : ①꾸리아-오늘 후 2 : 30 ②부녀회-8일 어머니 미사 후  
③제대회-10일 후 3시 ④성체회-12일 공식미사 후
- 8. 오무균(도미니코) 작품전 : 10일 후 6시 예술회관
- 9. 개업 축복미사 : 9일 12시 이성기(니고노) 장동집 골목
- 10. 탈상미사 : 10일 11시 양교단(마리아) 연령 장남A 2/706 이영래(세실리아매)
- 11. 전입을 환영합니다 : 코요롱APT 김혜경(가브리엘라) 4/1402 ☎225-6671 유영순(마리아) 2/806 ☎225-7103 황호성(야고보) 4/1202 ☎225-1514 송옥희(아녜스) 12/902 ☎222-2250 장인현(시몬) 2/705 ☎224-8933 김정경(스테파노) 5/101 ☎222-0933 전수강(안드레아) 10/401 ☎225-2637 김대욱(요셉) 2/606 ☎225-7053
- 지난주 봉헌금 : 1,395,920원 □ 교무금 : 1,726,000원